

# 능력, 열망... 보여줄 것 다 보여 주었다

### 치밀한 준비·시민정신, 신뢰 높이고 감동 줬 노대통령 '깜짝 방문' 확고한 유치의지 과시

#### ■ 실사단 현지실사 마무리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보여 주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세계박람회사무국(BIE)의 실사에서 우리 정부와 개최도시인 여수시는 치밀한 준비와 단합된 시민정신으로 실사단을 크게 감동시켰다.

정부는 실사의 핵심인 박람회 주제 및 구체적인 대회 운영 전반에 걸친 프리젠테이션을 충실하게 준비함으로써 개최 능력에 대한 실사단의 신뢰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11~12일 이틀동안 있었던 여수 현지 실사에서 여수시민들은 생업을 잠시 접고 국가적 대사인 박람회 개최에 대한 열망을 그대로 보여줘 실사단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번 실사를 위해 해양수산부, 중앙유치위, 전남도, 여수시, 여수시유치준비위 등 관련 기관과 여수시민들은 한마음이 돼 꼬박 4개월을 매달렸다.

우선 정부와 중앙유치위는 여수박람회의 주제와 의미를 적절하게 설정해 실사단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여수박람회 주제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을 통해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사단의 큰 공감을 불러와 앞으로 유치전에서 ‘호재’로 작용하게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와 함께 정부와 중앙유치위원회의 대회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프리젠테이션은 실사단에 깊은 신뢰를 주었다. 정부 각 부처별로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박람회 개최 때 각 부문의 역할을 실사단에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유치능력을 충분히 각인시킨 것이 이번 실사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여기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한 프리젠테이션을 보여줘 우리나라의 박람회 개최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또 11일 실사단이 여수 현지 방문시 노대통령이 직접 내려와 정부의 확고한 유치의지를 밝혀 실사단을 감동시킨 것은 ‘금상첨화’였다. 대통령이 참석한 합상 리셉션은 정부의 유치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굿 아이디어’로 박람회 유치가 성공할 경우 오래도록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사에서 정부의 노력에 버금갈 정도로 빛난 것은 여수시민들의 박람회 개최에 대한 열망이었다. 여수시는 지난 1월부터 토·일요일 없이 전 직원이 나와 비상근무를 하는 열의를 보였다.

특히 이번 실사에서 여수 시민들이 보여준 열의는 거의 ‘기록적’이다. 지난 11일 현



남해 주민들의 환영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실사단이 12일 오후 헬기를 타기 위해 남해포츠파크에 도착하자 경남 남해 군민 200여명이 실사단원의 국가 국기를 흔들며 환영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 실사 첫 날에는 여수시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5만여 인파가 실사단을 맞았고 남해 노소 할 것 없이 “여수엑스포”를 외쳤다.

지난 2002년 박람회 유치 실패라는 아픔을 겪었던 시민들은 하나같이 “그때 이랬더라면...”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실사에 모든 것을 걸었다. 거북선축제 등 실사 기간에 맞춰 개최하고 불꽃축제 등 이색적인 이벤트를 가미해 잔치분위에서 실사를 진행한 것도 매우 유익했다는 분석이다. 정찬용 중앙유치위 상임부위원장은 “서

유 및 현장 방문 실사 모두 잘 됐다. 앞으로 중앙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실천적 집행이 필요하며 현지에서는 엑스포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이번 실사를 위해 애써 준 공직자와 여수시민, 중앙정부, 유치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유치 열기를 지속시키면서 실사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을 개선해 박람회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환경·주민 이주 문제 집중 질의 헬기 항공 시찰 “원더풀” 연발

#### ■ 실사단 현장점검 이모저모

2012년 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세계박람회사무국(BIE)의 여수 현지 실사 이틀째인 12일 실사단은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개최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남해 힐트호텔에서 진행된 프리젠테이션에서 실사단은 전남 수 만명이 운집한 시민환영 행사의 감동이 채 가지지 않는 듯 상기된 얼굴이었다.

이날 프리젠테이션은 개최지 부지 및 교통여건, 박람회장 조성 및 사후활용 계획, 전시참가자 수와 유형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영상과 서면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실사단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보고에 나선 오현섭 여수시장은 “개최지 부지 및 교통여건”과 관련 여수시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대책을 직접 영어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프리젠테이션 질의·응답에 앞서 개러맨 실방 실사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제 특별한 환대를 받았고 여수시민들의 박람회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능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사단은 영상관람 후 환경문제로 부지내 주민 이주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등 박람회 개최를 위한 현안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쫓았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100여 가구 주민들이 더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개최시 우려되는 하수처리 문제 역시 현장에서 운영중인 해당 시설의 용량에 40% 이상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해양오염이 있을 수 없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답했다.

이어 실사단은 박준영 전남지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 뒤 헬기 3대에 나눠 타고 박람회 주변 여건에 대한 항공 시찰에 나섰다. 헬기 이동 중에는 박람회 부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현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해당 지점 통과시에는 애드벌룬을 띄워 부지를 표시, 눈길을 끌었다.

여수신항 2부두에 도착한 실사단은 이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부터 박람회 부지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부지 설명 때 상에서는 어선들의 페어리드와 요트, 제트스키 등의 수상 쇼를 펼쳐며 다시 한 번 유치의지를 보여주었다.

실사단은 옛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자리에 건립된 박람회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 핸드프린팅 행사를 가지며 다시 한 번 여수시민들과 만나 환한 미소로 환대에 답했다. 또 전국 10개 도시에서 유치지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여수에 도착한 ‘2012트윈전국 사이클 투어단’으로부터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이날 활동으로 여수 현지 실사 일정을 모두 끝낸 실사단은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이날 오후 여수공항을 통해 상경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모든 것 완벽...여수는 승자 자격 충분”

#### ■ 실사단 기자회견 내용

여수현지실사를 마무리한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실사단은 전남도와 여수시, 여수시민의 열렬한 환영과 뜨거운 유치 열기, 그리고 완벽한 실사준비에 놀라움과 함께 감명을 표시했다.

실사단장인 개러맨 실방(캐나다) BIE 집행위원장은 12일 오후 여수시 수정동 세계박람회 홍보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사단은 여수시민과 단체, 지방정부의 박람회 유치 의지를 직접 살펴보고, 실제 박람회가 열릴 부지와 숙박 및 교통시설을 확인하려 왔다”며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의 준비는 환상적이고 완벽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수는 너무도 아름다운 천연 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박람회주제 역시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세계 각국에 경제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며 “현재까지 실사결과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방 단장은 이와 함께 “이번에 여수시민들로부터 받은 환영은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열렬한 것이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실방 단장은 그러나 숙박과 교통 분야에 대해 다소 미흡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히, 이 분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실사단원인 헝가리 대표 글로프씨는 “여수의 박람회 주제는 내륙국의 입장까지도 고려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내륙국들이 선택을 할 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박람회 주제를 내륙국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브라질 대표인 카스트로브씨는 “한국과 여수를 둘러보며 과학과 기술이 너무나 첨단화되어 있는 ‘강국’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국은 자랑스러울 만한 이유가 있고, 또 승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축하한다”고 말했다.

프로스타코브 러시아 대표는 “여수의 준비는 흥미롭고, 잘 조직돼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히고 “여수는 이제 새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실사단이 12일 오후 여수엑스포 홍보관에서 이틀간의 실사를 총평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로운 친구를 얻었으며, 새 친구는 여수의 메시지를 지니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세르 탈레스 사무총장은 “실사 보고서와 프리젠테이션, 주민 유치 열기 등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며 “이번 실사에서 여수는 박람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원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산수동의 아침을 엽니다!

## 산수동 다소미 프라자 탄생!!

푸른 무등산, 상쾌한 공기...  
名山 無等山の 품에 안긴 최고의 明堂 산수동!  
이제 그곳에서 아파트와 문화시설이 함께하는  
당신의 아침을 맞이 하십시오.

● 대지면적 : 3,395.30㎡  
● 연 면적 : 25,566.04㎡  
● 건축규모 : 지상 14층, 지하 4층

**2007년 9월 분양예정**  
아파트 34평형, 38평형 80세대

● 산수동 최고의 특급환경

- 뛰어난 입지조건!** - 무등산 자락의 가장 인근에 위치한 마지막 남은 명당 - 문화시설(마트, 병원, 사우나, 학원등)이 함께하는 新 주거문화
- 산수동 최고상권!** - 단지 옆 주공아파트 신축(6개동 376세대) 예정 - 산수오거리, 법원, 경찰청 등 주변상권 프리미엄
- 특특되는 투자가치!** - 무등산 자락의 마지막 明堂 - 시공발달의 교통요지

● 층별 안내

14층~4층	아파트 80세대(34평형, 38평형)
3층	유틸리티센터, 사우나, 찜질방
2층	근린생활(학원, 병원 등)
1층~지하1층	마트 또는 대형슈퍼마켓(SSM)
지하2층~3층	지하주차장
지하4층	기계실

● 현장위치

- 토지주 : (주)민아건설
- 시행사 : (주)연방공영건설
- 시공사 : (주)로그인종합건설
- 자금관리 : (주)디올부동산신탁